

육우 의무자조금 통해 육우산업의 가치 소비자에 알릴 터



박 대 안
육우자조금대의원회 의장

안녕하십니까? 육우 의무자조금 대의원회 의장 박대안입니다.

육우 의무자조금 시행 첫해에 이러한 중대한 직책을 맡아 걱정과 우려가 앞서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의원회는 최고의결기구이니만큼 신중하고 정확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대의원들의 원활한 소통과 대의원간의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후 결정될 수 있도록 구심점이 되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듯이, 육우 의무자조금이 3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도축 두당 거출금을 12,000원으로 정한 것은 어려운 육우농가의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정부지원금을 함께 고려한 대의원님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는 2009년 임의자조금이 도입된 지 5년 만의 성과입니다.

아울러 육우 의무자조금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임의자조금을 추진하고 자조금의 의미를 알리는 한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육우 홍보에 헌신하신 육우 임의자조금 위원장 및 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합니다.

비록 축산분야에서 육우 의무자조금의 시행은 타 축종에 비해 적은 규모이고 늦은 출발이긴 하지만, 침체돼 있는 육우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전환점이자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육우자조금은 농가 스스로가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거출해 조성한 기금으로, 육우의 소비촉진 홍보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조사 연구 등의 사업에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특히 자조금은 생산자 거출금 범위 내에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어 총 예산규모는 농가 거출액의 배에 달합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매우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던 한우 가격이 예상을 뒤엎고 빠르게 오름세로 돌아선 것은 일본 방사능의 영향도 있었지만, 농가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355억 원의 한우자조금으로 펼친 소비 촉진홍보 사업이 큰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돼지고기의 비선호 부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도 187억 원에 달하는 한돈자조금으로 비선호 부위를 맛있게 먹는 요리방법 등 다양한 소비자 홍보전략을 마련한 덕분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시도하고 도전하여야 합니다. 최근 대내외 여건 변화로 육우산업은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한우 두수 증가와 쇠고기 수입확대, 소비 위축 등으로 인해 육우가 격이 무려 34% 폭락한 상황에서 사료값 등 생산비마저 계속 올라 육우농가들은 두당 100만 원 이상의 적자에 허덕이며 도산하거나 축산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육우산업이 경쟁력을 갖춘 강한 산업이 되어야 하고, 그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육우고기 등급제 개선 △육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육우고기 소비처 모색 △육우고기 판매망 확립 △자조금을 통한 사업 및 연구 홍보전략 마련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동력을 이끌어내려면 우리 육우농가의 협력과 단결이 무엇보다 절실하며, 모두가 합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육우농가 단결은 현재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육우 자조금사업에 대한 참여와 성과’가 될 것입니다.

육우 자조금사업은 흔들리는 육우산업 기반과 육우농가의 현황을 파악하여 조직력을 높이고, 그 동안 어떠한 노력에도 가려져 있던 육우고기와 육우산업의 가치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함께 육우농가들은 육우 자조금사업을 통해 자부심을 가진 대한민국 축산인으로서 당당하게 새로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공을 세우되 내세우지 말며, 이끌되 지배하지 말라”는 말처럼 생각하고 노력하는 육우자조금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겠습니다. ☺